

與 ‘정국 주도권’ 野 ‘야권 재편론’ 쟁걸음

향후 정국 전망

4·29 재보선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0대4'로 참패함으로써 야권 발전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텃밭인 광주 서울에서도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새정치연합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게 됐다. 따라서 기존 신당 움직임에 더해져 호남 정치세력을 주축으로 한 신당 논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과 분석 = '성완중 파문'에 힘입어 야당이 '4대0'으로 압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정반대로 나왔다. '성완중 리스트'의 효과보다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특별 사면'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특별사면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응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도 불구하고, 선거 하루 전날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가 여당의 완승을 이끈 최대 변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완중 리스트 파문' 이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 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전환용' 메시지로 '성완중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여당을 구해냈다.

이 메시지는 접전지에서 보수성향 유권자의 결집을 불렀지만 야당이 바랐던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이에 따른 야권표의 결집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해외에서 연일 강행군으로 '몰살'이 난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박대통령 조기 레임덕 우려 씻어 새누리 지도부 對野 우월적 위치

문재인 선거 패배 책임론 급부상 친노계·비주류 갈등심화 가능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29일 여의도 당사 4·29재보선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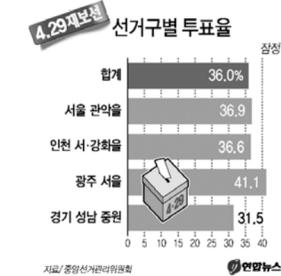
◇ 향후 정국=일단 선거 후 정국은 여당의 일방적 독주 속에 분열된 야당이 힘겨운 견제를 해야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에서 여권은 힘을 갖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우려를 씻고 다시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도 청와대와 긴밀한 공조 속에 야당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위치를 갖게 됐다.

여권의 독주 속에 야권은 제 목소리를

내기 버거워졌다. 야당은 그 이전에 당내 분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무엇보다 선거 패배 책임론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수면 아래서는 전라북부의 당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면서 친노(친노무현)계와 비주류의 갈등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전격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개연성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기 대권주자 기상도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던 29일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정반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앞서 가던 문 대표는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게 된 반면, 뒤쫓아가던 김 대표는 첫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우선 이번 재보선 결과의 최대 수혜자 중 한 사람이다. 당 내외에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대권기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도 크게 오르면서 여권 대권주자 중 선두를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수도권권의 승리를 견인한 것은 물론, '호남총리론'으로 광주 서울 새누리당 정승후보가 11%를 득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야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됨은 물론 청와대와 관계에서도 제 목소리 낼 힘을 갖게 됐다.

반면 문 대표는 대권가도에 먹구름이

쌌었다.

정당대회 기간 그가 내걸었던 '이기'는 정당론이'이 상당 부분 퇴색하면서 책 임론의 중심에 설 수도 있게 됐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패배는 문 대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비노(비노무현) 정서가 여전한 텃밭 호남의 민심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야권 재편이라는 도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물론 '성완중 파문'으로 여야간 전선이 크게 쳐 있는 상황에서 자중지란은 피해야 한다는 내부 경계심도 적지 않아 문 대표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돼 가시밭길 대권기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무엇보다 '친노(친노무현)계는 경선은 이기고 본선은 진다'는 당 내외 비판을 극복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텃밭 두자릿수 득표율 '선전'

'제2 이정현' 노렸던 정승

'제2의 이정현'을 기치로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 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못하며 분투를 삼켰다.

정 후보는 선거 초반 '예산 불복'이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며 이정현 의원의 지지 지역을 다지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연합 조영태 후보의 양강 구도를 깨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양강 구도'가 없었다면 새정치연합에 냉랭했던 지역 정서에 힘입어 정 후보가 최소한 20%대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성완중 리스트 정국에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친 상황에서 새누리당 정 후보가 두 자릿수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그런대로 선전한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딱 1년만 써 버릴라는 정 후보와 이정현 의원의 지지 호소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며 "호남에서도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 구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 심정 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6.75%를 득표, 나름대로 분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내년 20대 총선 '먹구름'...호남정치 대변혁 예고

일당 독점구도 깨지고 정치신인 대거 등장할 듯

20대 총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29일 실시된 재보선결과를 보고 아연실색하고 있다. 의원들은 '실마'했던 0대4 패배를 목도하고 위기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진듯한 분위기다.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아무리 거물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했다고 하나 텃밭에서 패배함으로써 '호남에선 공천만 받으면 이긴다'는 공식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벌써 호남지역의 정치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당이 탄생할 경우 민심의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을 이번 재보선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당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신당이 정치신인들을 대거 영입할 경우 기존

정당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신당 탄생 후 20대 총선이 치러진다면 일당 독재의 호남 정치지형은 깨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한 새정치연합 당원은 이날 "이번 재보선은 호남 정치지형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정치신인들이 신당에 들어가 잠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야권의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새정치연합 내에서의 개혁 공전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혁명적 물갈이를 통해 위기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 입지가 약하거나 지역민심으로부터 떨어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물갈이론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으로 호남지역 다선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게 됐다"며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물갈이를 통한 정치신인 발굴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 지도부는 공천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곡성군의원 가 선거구 이재호 후보 당선

29일 치러진 곡성군의원 가 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재호(52)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이날 개



표결과 29.28%의 득표율을 얻어 무소속 박철규 후보(21.8%)와 손신환 후보(16.20%) 등을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무소속 강덕구 후보는 12.31%를, 무소속 최태호 후보는 10.91%, 무소속 임원자 후보는 8.46%의 득표율을 얻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법제처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령안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 검색

법제처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행정부처 홈페이지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3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요금신고제 도입

· 개선령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중학교배정 시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하여 우선배정 등 별도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완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실업크레딧 제도의 신청방법 등을 상세규정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확장을 위한 의무부과 요건 강화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정지사유 확대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및 취소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를 통한 부정·불량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 부정·불량약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강화

법무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

· 진술보조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유형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업종의 특성상 개발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 상업지역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